

아주대의료원소식

2003

4

통권 제 99호 / 발행일 2003. 4. 1 / 발행인 겸 편집인 姜信榮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442-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포커스
이성낙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4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위암의 완벽한 치료를 위한 도전
- 5 선인재 칼럼
남을 배려하며 공존하는 사회
- 6 진료교실
불철 자외선과 피부관리
- 8 잊을 수 없는 환자
이제, 1절만 할게요
- 9 음식 속 건강③
신비의 건강식품, 장
- 10 인체탐방 관절 이야기
- 11 교원인사 새로운 리더쉽 구축
- 16 AMC NEWS
- 20 건강 Q&A
- 축농증 수술
- 폐섬유경화증
- 22 특별기고
의사 눈에 비친 대구지하철참사
- 24 스포츠의학
산악 자전거, 내몸에 맞춰서 타기
- 25 내가 꿈꾸는 의료인
다정한 상담자 같은 의사
- 26 협력병원 탐방
굿모닝병원
- 27 유명인과 질병
나폴레옹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월드 클래스 메디컬센터」를 꿈꾸며



아주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로 거듭나고자 하는 '아주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아주대의료원도 새로운 꿈, 「월드 클래스 메디컬센터」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슴 깊이 품어봅니다.

올해로 아주의대가 설립된지 15년, 병원이 9년이 되었습니다.

아주대의료원은 그동안 젊음의 도전과 열정으로 남들이 힘들다고 하였던 많은 것들을 이루었으며,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이제 아주대의료원은 또 다른 새로운 꿈, 「월드 클래스 메디컬센터」에 도전합니다.

꿈을 실천하여 나가는 아주대의료원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이성낙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낙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학술 강연회가 아주대 피부과학교실 주관으로 지난 3월29일 토요일 COEX 컨벤션홀에서 전두환 前대통령 내외, 가족, 동료, 제자들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회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독일 Christophers 교수(독일 Kiel 의대 피부과 명예교수, 전 Keil 의대 학장), 미국 J. Strauss 박사(아이오와 의대 피부과 명예교수, 여드름 분야의 최고 권위자), S. Katz 박사(NIH 교수, 세계피부과학회 회장), 일본 F. Kaneko 교수(후쿠시마 의대 피부과 주임교수), S. Ohno 교수(홋카이도 의대 안과 주임교수), H. Ogawa 교수(준텐도대학 총장) 등이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이성낙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두 모여 강연을 가져 화제를 일으켰다.

학술강연회에 이어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만찬자리에서 강신영 의원장은 『우리 의학과 아주대의료원 발전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이 교수의 강한 의지와, 자신에 대한 믿음, 뜨거운 열정이 앞으로도 후학과 의료계 발전에 변함없이 이어지길 기원』 했으며, 김덕현 세미회장도 『제도적인 정년만 있을 뿐 가르침에는 정년이 없으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축하했다.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교수는 『한 사람의 문화인으로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데 더 공헌하시길』 기원했다. 아주대학교 오명 총장은 『우리 나라 처음으로 제자들이 석좌기금을 마련하여 아주대학교에서 계속 모실 수 있게 되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축배 제의를 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온 독일 유학시절 동료인 prof. W. Londong 교

수와 학술 강연회 6명의 연자들도 이성낙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또한 이성낙 교수의 제자이자 베체트병 연구 동료인 연세대 방동식 교수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베체트병에 관한 연구논문들 집약한 3번째 연구논문집 「베체트병에 관한 연구논문집Ⅲ 1995-2002」를 이 교수에게 헌정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성낙 교수는 『여러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에 축하받고 싶다』면서 『인연을 잘 가꿔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연자들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하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했다. 『가장 값진 보물인 소중한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석좌교수로서 후배 교수들과 제자들이 진료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퇴임 소감을 밝혔다.

이성낙 교수는 1983년 국내 처음으로 연세대의료원에 「베체트병 특수클리닉」을 개설했으며, 세계 최초로 베체트병의 원인을 단순 포진 바이러스임을 확증해 전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석학으로, 1990년 3월부터 아주대 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초대 아주대 의대 학장, 초대 의료원장, 초대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아주대의료원의 초석을 다진 1등 공신으로, 초대 학장 재임시 주임교수만 직접 인선하고 교실총원은 주임 교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원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인성교육과 영어교육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 현재 경쟁력 있는 의대로 발전시키는데 초석을 다졌다.

아주대학교는 이성낙 교수의 명성과 업적 그리고 아주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2003년 2월28일 정년퇴임과 함께 2003년 3월1일 아주대학교 석좌교수에 임명했다. 국내 의대 교수로는 처음으로 석좌교수에 임용된 이성낙 교수는 의학자로, 석좌교수로 귀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평가이다.

오은영 / 홍보팀



위암의 완벽한 치료를 위한 도전

2년

이러는 짧지 않은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고 귀국한 지 막 1주일. 기후가 달라서 인지 도착하자마자 감기 몸살로 고생하고 있고 아직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인지 밤에 자다가 한 두 번씩 깨기도 한다. 타국에서 지낸 시간이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에 연수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나의 전공은 위암이다. 위암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종의 하나로 많은 가족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병이다. 위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탄 음식이나 짠 음식의 섭취가 위험인자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위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있다. 위암의 치료는 수술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외과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완벽한 수술을 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2년 전 연수하기 전부터 나의 중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위암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연구와 환자의 치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수지를 물색하던 중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암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2001년 3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향해 떠났다.

연수를 시작한 곳은 김성진 박사님이 이끄는 실험실인데 다행히 한국인이 많이 근무하는 실험실이라 처음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았고 비교적 빨리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실험실은 다소 낯설었고 처음 다루어 보는 기구들이 많아 외과의사로서 주로 환자를 직접 대하는 일에만 익숙하였던 나로서는 처음 3개월 정도는 학생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었다.

실험이 제법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 헬리코박터 균과 위세포를 함께 배양하여 이 균이 위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현상들을 발견하여 가끔 흥분하기도

하였으나 보다 진보적인 연구를 시행할 무렵 실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연구소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실험을 끝까지 잘 지원해 주어 위암의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과제에 참여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귀국하여 계속 연구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게 되어 나름대로 만족스런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근교였는데 작년 가을에는 이 곳에서 공교롭게도 저격수가 무차별로 일반인을 총격하는 바람에 한 달간 외출하기가 무서웠고, 귀국하기 전 약 3개월 동안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바람에 테러에 대한 보안을 한답시고 매일 연구소 출입할 때마다 기분 나쁜 검문을 받아야 했기에 일상 생활에 제한이 많아 불편한 점이 여간 많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폭설이 자주 찾아와 거의 매일 집에서만 꼼짝 않고 쳐박혀 있는 바람에 미국에 대한 마지막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돌아켜 보면 가족과 함께 하였던 시간이 많았고 여행을 하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면을 빌어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연수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발판으로 앞으로 의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각오를 해 본다.

한 상 옥 교수 / 외과학교실



남을 배려하며 공존하는 사회

우

리는 지난 달 끔찍하리만큼 무서운 인재를 경험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우리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지난 많은 사고들이 있을 때 마다 매일 저녁 뉴스에는 원인은 어떻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는 등 부산 떨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는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공권을 예약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공항에 안 나오는 것, 진료 및 검사예약을 해 놓고 연락 없이 오지 않는 것 등 무책임한 행위는 다른 이가 급히 비행기를 타거나 진료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데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 하는 꼴이 되어 그 시간과 비용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이것은 실제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많은 부분에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 우리 학교 교육 및 가정 교육에서도 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 및 근래 유행하고 있는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은 남에게 많은 폐를 끼치면서 뛰어 다니는 데도 대부분의 부모는 수수방관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는 사회는 결국 자기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의식의 팽배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세를 만들어 또 다른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회의 이면에 흐르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뉴스에서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물 처리장 반대 등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된다. 석유가 나오지 않는 우리 나라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의학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형광등, 시계 등과 같은 우리 주위 가까운 물건들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인데,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물 처리장 반대 같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이로운 것은 모두 이용한 후 그 뒤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실제 원자력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면 그 무서운 곳에서 근무하는 원자력 관련 산업체 직원을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들이 그 무서운 원자로 속에서 두려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매우 정교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장 또한 안전한 기술을 이용하여 건설하고 관리할 경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녀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 석 남 주임교수 / 핵의학과학교실



봄철 자외선과 피부관리

자외선 차단 크림은 여름 피서지나 야외 수영장에서만 바르는 것일까? 햇볕의 자외선은 3월에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최고조에 달한다. 따스한 봄볕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피부를 노린다. 겨울보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 올바른 피부관리에 대해 피부과 이은소 주임교수로부터 들어본다.



봄볕이 가을볕보다 나쁘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늦게까지 눈이 내렸지만 다시 봄이 돌아왔다. 옛말에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봄볕이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사실 과학적으로 봄볕이 가을볕보다 더 나쁘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실내 생활을 많이 함에 따라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해 지기 때문이다. 또 봄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날리는 꽃가루 등 피부를 자극하는 요인이 유난히 많은 계절이다.

피부노화를 촉진하고 잔주름을 만드는 자외선

태양광선 중 자외선은 200~400nm의 파장을 가지며 인간 피부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친다. 자외선 A(UVA, 320~400nm)는 주로 피부의 색소 침착을 유도하여 피부를 태우는 색소침착성 광선이며 주근깨 혹은 기미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광 과민성 피부질환들은 자외선 A에 의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다. 자외선 B(UVB, 280~320nm)는 피부의 흉반(붉어짐)을 주로 유도하는 광선으로 일광화상의 주범이며 피부노화, 피부암 발생 등에 관여한다.

자외선 B 역시 광과민성 피부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도 한다. 자외선 C(UVC, 200~280nm)는 대기층 중 오존층에 의해 여과되므로 지상에 거의 도달하지 않으나 살균작용과 피부암 유발에 관계되는 광선이다. 요즘 산업공해로 오존층이 얇아지고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UVC가 지상에 많이 조사되어 피부암 및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최근에는 오존층의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결의까지 있었다. 일정한 기간에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은 계절, 시간, 지구 대기상태, 적도와의 근접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여름철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1998년 6월1일부터 자외선 지수 예보를 하루 2회 발표하는데 자외선 지수란 태양 고도가 최대인 남중 시각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 영역의 복사량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자외선 지수의 1년 변화 그래프를 보면 3월부터 자외선 지수가 증가하여 7~8월에 최고에 달함을 알 수 있다<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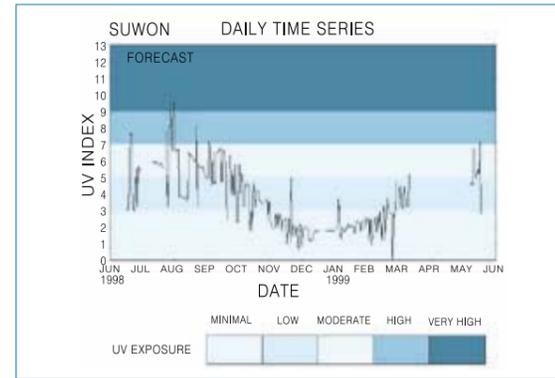
따라서 봄이라도 자외선 노출로부터 피부를 적절히 보호해야 하므로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써야 한다.

▲ 자외선을 받아 검은 색소가 침착된 여성의 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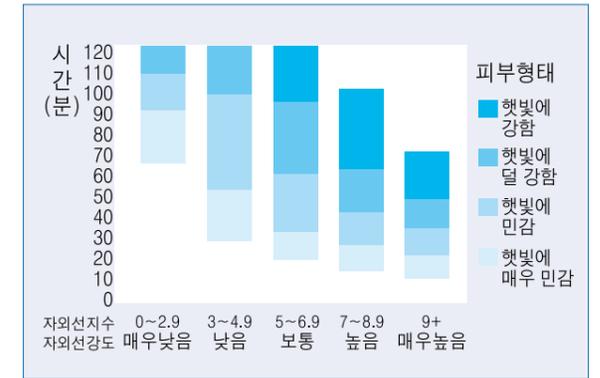
<표1> 자외선 종류와 특성

종류	파장(nm)	특성
자외선A	320~400	피부의 색소 침착 유도, 주근깨·기미를 유발하거나 악화, 광과민성 피부질환 유발
자외선B	280~320	피부의 붉은 점 유발, 햇볕 화상의 주범, 피부 노화·피부암 발생 관여
자외선C	200~280	살균작용, 피부암 유발 오존층에서 여과됨

<표2> 수원시민이 찍는 자외선(1999년)



<표3> 자외선 지수에 따른 피부 흉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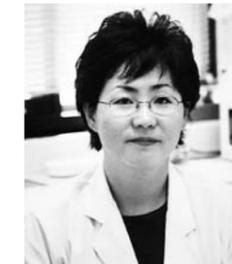


피부건조증 관리

봄에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피부의 건조증이다. 봄에는 기온이 높아져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 차고 건조한 바람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기는 하나 봄바람도 이에 못지 않게 피부를 건조하게 하므로 피부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피부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좋다. 각질층의 수분증발을 막아 건조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씻은 후에는 피부 보습제를 바르고, 잦은 목욕이나 때를 심하게 벗기는 목욕, 장시간 사우나보다는 간단히 샤워하는 것이 좋고, 샤워할 때는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샤워 후에도 적당한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부를 청결하게

봄에는 겨울이 지나면서 기온의 상승에 따라 피지의 분비량이 늘어나고 황사나 먼지, 꽃가루 등에 대한 접촉빈도가 많아져 피부가 불결해지기 쉽다. 특히 외출 후에는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므로 비누로 잘 씻고 비누의 알칼리성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낸다. 이때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외 춘곤증 등 피로가 누적되거나 겨우내 누적된 영양결핍, 봄철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불면증 등도 피부를 해치는 요인이다. 충분한 영양섭취와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등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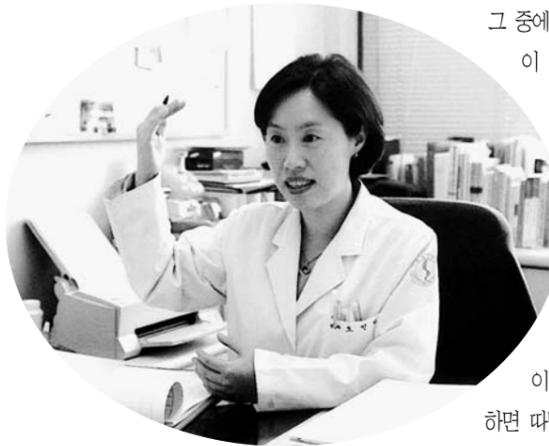


이은소 주임교수 / 피부과학교실

정신과 조선미 교수가 잇지 못하는 환자 이야기

이제, 1절만 할게요

정 신과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 애착을 갖고 하는 것이 부모 교육이다. 소아정신과를 방문하는 아이들 중 많은 아이가 주의력 장애로 오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의 경우 효과적으로 훈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 키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한 번 집단이 구성되면 8~10주 동안 매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번에 두 시간 이상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 키우는 문제뿐 아니라 삶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다. 시댁과의 불화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쏟는 분도 계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부부갈등을 남몰래 와서 털어놓는 분도 있었다.



그 중에 한 분, 진수 어머니는 세련된 차림에 지적인 외모를 지닌 분으로 주변 친구에게 부모 교육이 좋다는 말을 듣고 왔으며 자발적으로 참가하신 분이였다.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어 보이는 차림이었고, 아이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읍저버 정도로 생각하고 집단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진수 어머니가 일단 말문을 열기 시작하니 누구도 제지하지 못할 정도의 달변이라 다른 참가자들이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나 적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가만히 들여보니 아이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굳이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지 않아도 평상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활을 짐작하게끔 해주는 면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진수 어머니의 경우 아이가 엄마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쭈뼛거리며 답답하고 속이 상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프로그램 내에서의 행동으로 볼 때 분명 아이가 한 마디 하면 파발총처럼 그렇게 하면 왜 안되는지, 왜 그것은 꼭 해야 되는지 쏘아붙일 것이 분명했는데, 문제는 어머니 스스로 그런 점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교육이나 상담시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야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치료자가 문제를 지적하는 식으로 반응할 경우 대부분 내담자들이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수 어머니의 파발총을 꼭 참으면서 몇 주를 지내니 슬슬 다른 참가자들이 한 두 마디씩 하게 되었다. 「말씀은 다 옳은데, 애가 그거 다 지키자면 힘들겠네요, 「그래도 앤데, 그 정도는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집단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하루는 진수 어머니가 오시더니 「선생님, 저희 애가 그러는데요, 저는 딱 일절만 하면 된대요. 자꾸 10절까지 하게 되는 게 제 문제인 것 같아요」라며 폭탄선언을 하였다. 그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드린 숙제, 이틀테면 아이와 놀아주기, 함께 문제 해결하기 등을 하면서 아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일절만 하자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10절까지 가게 되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진수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사인을 보내도록 하고, 그 사인을 보면 바로 어머니가 말을 그치도록 하는 약속을 정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제가 왜 이런지 알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몇 십절 하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언니, 여동생 다 그러네요」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것이다.

당시 외국 어디로 이민가신다면서 언니, 동생도 모두 부모교육에 보내야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만날 수는 없었다. 진수 어머니, 지금은 몇 절까지 하시나요?

조 선 미 교수 / 정신과학교실

신비의 건강식품, ‘장(醬)’

「장」 이라고 하면 좁게는 간장을 뜻하며 넓게는 간장·된장·청국장·막장·즙장·고추장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써 이들을 총칭하여 장류(醬類)라고 한다. 식물성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콩은 적당한 양의 소금과 함께 미생물로 분해하면 육류와 같은 구수한 향미를 내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은 조미의 재료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공 발효식품인 장은 일본, 중국의 동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되어 장류 문화권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나라 만큼 장의 역사도 깊고 독특하고 가치수가 많은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단연 장류 문화권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기록상의 장은 콩의 역사에 비해 그다지 길지 않다. 그러나 「삼국지」의 고구려인의 장담기에서 그 기원을 살펴볼 때 3세기 경에는 장담기가 이미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메주가루에다 조선 중기 이후 도입된 고추를 이용한 만초장(고추장) 제조법을 새로 선보이면서 고기와 생선들을 곁들여 담근 청국장, 어육장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장류와 향초장, 별미장을 제조하여 독특한 장문화를 뿌리 내렸다

「장(醬)」이란 글자는 중국의 「주례」에 처음 나타나며 이 때의 장은 콩으로 만든 장이 아니라 고기를 재료로 한 육장이다. 콩으로 만든 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보편화된 발효식품이었다. 「해동역사」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말장(未醬)이란 분디 장을 말한 것이나 후에 메주를 가리키게 되었다. 한편 이 말장이 일본으로 건너가 「미소」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간장

의 간은 소금기의 짠맛을 의미하고 맑은 햇장을 청장(淸醬), 그 다음의 것을 중장, 해를 거듭해 묵은 장은 진장(陳醬), 맛이 좋게 묵은 장을 진장(眞醬)으로 표현한다. 된장의 된은 「되다(hard)」의 뜻이 담겨있으며, 토장이라고도 한다. 청국장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인들이 전시에 급히 만들어 먹어서 전국장(戰國醬)이 원래 이름이었다는 설과 청나라로부터 전래되어서 청국장(淸國醬)이라는 설이 있다.

최근까지 밝혀진 된장과 청국장의 연구로는 납두균, 레시틴, 아이소플라본 등의 다양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들 발효식품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 세포분열을 온전하게 진행시키며, 혈전증의 치료제로도 유용하고, 특히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청국장은 콩을 가장 지혜롭게 먹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최근에는 청국장이 지닌 여러 약효 때문에 신비의 건강식품이라고 불리어진다. 청국장에는 천연효소가 듬뿍 들어있고 요구르트보다 100배나 많은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다. 장내 젖산균의 활동을 도와 암예방 효과도 있다. 청국장의 발효가 끝난 콩을 납두라 하는데 이것이 혈전증 치료제로 쓰인다.

이 춘 자 교수 /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아주대학교병원 영양연구회에서 콩, 된장, 두부, 차의 종류와 효능, 아채류와 비타민, 김치와 젓갈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 속 건강」을 연재합니다. 영양연구회는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아주대내외 교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주임교수를 주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ips



1 된장국의 맛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

된장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다른 재료를 많이 혼합하여 끓여도 된장국물의 맛은 쉽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은 된장의 주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 짠맛이 강한 된장찌개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재래 된장의 짠맛은 매우 강하다. 따라서 된장찌개를 많이 섭취하면 염분과다 섭취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된장을 이용한 찌개나 국의 염분을 줄일 수 있는 현미가루나 부추, 표고버섯 등의 부재료를 많이 넣고 끓이면 짠맛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미가루와 부추는 니트륨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며 버섯은 바이러스 증식억제작용 및 면역력 증강작용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 이야기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은 모두 관절이라고 한다. 이런 관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뼈를 깎는 엄청난 고통을 평생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관절염센터 서창희 교수와 민병현 교수로부터 우리 몸의 소중한 구성인 관절에서 발생하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들어본다.

관절질환의 내과적 치료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관절질환에는 매우 다양한 질병이 있으나 가장 흔한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의 진단과 내과적인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염으로 6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50% 이상에서,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관찰된다. 비만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무릎관절 골관절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고관절 골관절염이 흔히 발생하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무릎관절 골관절염이 잘 생긴다.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환자에서는 손가락관절의 골관절염이 호발한다.

골관절염의 증상

관절의 통증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나, 초기에는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활동을 하면 통증이 유발되고 쉬면 증상이 호전된다. 많은 환자들이 평지를 걸을 때는 증상이 없으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경사진 곳을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뼈가 자라나는 것도 흔한데, 이 때문에 관절주위를 만질 때 통증이 생기게 된다. 관절연골의 손상에 의해서 관절면의 요철에 의해서 관절이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관절염 환자의 90%이상에서 나타난다. 무릎관절 골관절염의 경우, 반 이상의 환자에서 관절의 외측보다 내측 연골의 손상이 심하여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동반된다.

증상과 방사선적 검사로 진단

골관절염의 진단은 관절증상과 방사선적인 검사로 진단한다. 방사선적인 변화는 초기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나 관절연골의 손상이 진행되면 관절간격이 좁아지고 관절의 가장자리에 뼈가 자라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통증 조절

골관절염을 완전히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골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의 조절과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며 변형을 방지하는데 있다. 골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환자 교육,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이며, 둘째는 약물치료, 마지막으로 동통이 심하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

환자의 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상 생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하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동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비만이나 불안정한 자세, 반복적인 관절의 무리한 운동 등은 골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체중을 줄이고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체중의 감소는 무릎의 골관절염의 발생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기능을 향상시킨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않는 운동

운동은 골관절염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등산,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등과 같은 운동은 골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좋지 않고, 수영, 자전거 타기, 평지를 걷는 것과 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좋다.

근육강화운동이나 적극적인 운동요법에 참여하는 것이 골관절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퇴사두근(quadriceps) 강화 운동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통증 조절이나 관절의 기능을 증가시킨다(p12~13 그림1, 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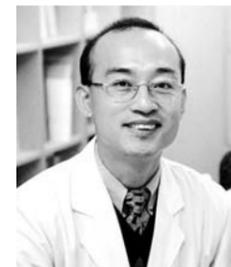
골관절염의 약물요법

골관절염의 약물치료로 초기에 추천되는 것은 위장관 부작용이 적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타이레놀(acetaminophen)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에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경우, 소염진통제를 사용하게 된다. 다양한 소염진통제가 통증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효과를 보이므로 소염진통제의 선택은 부작용, 하루에 몇 번 복용하는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소염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부작용으로 복통, 소화불량, 위십이지장 궤양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들 부작용은 줄이면서 치료효과는 동등한 Cox-2 선택억제제(Celecoxib, Rofecoxib)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국소적으로 도포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고나 부착포를 함께 사용하여 통증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관절강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반적으로 1~3주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반복적인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관절연골의 손상을 더욱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년에 3번 이상 주사를 맞는 것은 좋지 않다. 관절강내 하이알루론산(hyaluronic acid)의 주사는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작용기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의 몇몇 보고에 의하면 관절연골의 손상을 줄이는 약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트르다와 글루코사민이다.

약물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심각한 기능의 장애가 있을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



서 창 희 교수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관절질환의 수술적 치료

약물치료로 증세의 호전이 없고, 병의 악화가 예상되는 환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보통 병원을 찾는 환자의 10~2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수술적 치료는 아래에 설명한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환자의 증상과 병변의 정도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시행한다.

관절내시경 수술

관절경 수술은 기구 및 술기의 발달로 작은 피부절개로 효과적으로 무릎관절의 검사 및 필요한 수술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전에 시행되던 많은 술식을 대신하게 되었다. 특히,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연골판의 변성 및 파열, 관절면 손상, 골극 및 유리체 형성 그리고 활액막염 등은 관절경 수술로써 해결 가능하며, 적은 부담과 합병증으로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관절경 수술 중 파열된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의 절제술 및 무릎관절 유리체 제거술 등 주로 기계적 증상을 호소했던 환자들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이 수술은 관절을 완전히 절개하는 수술과는 달리 연부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고, 수술 후 통증이 적어 조기에 관절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따라서 입원기간이 짧아 치료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적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경골 근위부 절골술

관절염이 진행되면 연골이 많이 마모되어 관절 자체가 변형되게 된다.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이렇게 관절염으로 휘어지거나 변형된 뼈를 잘라 바르게 교정하는 수술이다. 이 수술의 적응조건은 환자가 비교적 젊은 나이 즉, 65세 미만의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환자에게 국한되며 병변이 양측 구획에 있는 경우도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중등도 정도의 병변이 있는 외측 구획에 부하를 옮김으로써 내측 구획의 동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술이다.

부분 관절성형 수술

부분 관절성형술이란 관절 일부분에 발생한 관절염이 전체로 퍼지기 전에 그 부분만을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관절의 내측 또는 외측의 일부 연골이 완전히 파괴된 환자가 적음 대상이다. 이 수술은 무릎을 세로로 적은 길이로 절개한 후, 건강한 연골부위는 건드리지 않고 손상된 부분만 제거하고 이곳에 관절 성형물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무릎을 20cm 가까이 절개하고 연골을 통째로 걷어내어 인공관절을 이식하던 종전 방법에 비해 혈액소모가 훨씬 적고 수술시간과 입원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수술

한 다음날이면 다시 보행할 수 있고 6주가 경과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릎 일부분에만 관절염이 있다 해도 슬개골 상태가 좋지 않다면 부분 관절 성형 수술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에 좋은 운동

유연성(관절범위/신장) 운동-스트레칭

유연성이란 관절의 운동범위를 말하며 근력의 약화와 마찬가지로 유연성의 부족도 흔히 관절에 장애를 일으킨다. 관절의 운동범위는 관절막, 근육과 근막, 힘줄, 인대 등의 신축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관절의 운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유연성(신장) 운동은 이 조직들, 특히 근육과 근막의 신축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민체조나 맨손체조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동으로 가능한 관절운동 범위에서 수초 동안 동작을 정지하여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운동 시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며 뛰거나 급히 움직이면 안된다.

근육강화운동

<그림1>



<그림2>



그림1. 등척성 운동. 이 운동은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등을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두 다리의 발목을 앞으로 한다. 뒤쪽 다리로는 앞으로 밀고 앞쪽 다리는 뒤로 당긴다. 이 때 두 다리의 힘을 동일하게 하여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10초간 유지한다. 다리의 힘을 푼다. 두 다리의 위치를 바꾸어서 반복한다.

그림2. 등장성 운동. 이 운동은 허벅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양쪽 발이 바닥에 닿게 앉아서 두 다리를 약간 벌린다. 한 쪽 다리를 다리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최대한 올려서 5초간 유지한다. 부드럽게 다리를 내린다. 잠깐 쉬 후 반대쪽 다리로 동일하게 반복한다.

근육 강화운동

근육 강화운동은 근육을 운동시킴으로써 근육의 힘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이 있다. 등척성 운동은 정적인 운동으로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릎관절을 편 상태로 허벅지 전방에 힘을 주어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등장성 운동은 일정한 무게의 부하를 유지하며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으로,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일정한 힘을 주어 무릎관절을 신전 시키는 것은 대퇴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지구력 운동

지구력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가장 이로운 운동으로 평지 걷기, 수영, 정지된 자전거타기 등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은 근육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유연성 운동인 신장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한 후에 점차적으로 지구력운동을 해야 한다.

첫째, 평지 걷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지지력이 좋고 편안한 신발이 필요하며 결코 무리해서는 안된다. 거리나 시간 등을 규칙적으로 기록하여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둘째, 수영은 정상적인 관절운동을 유지시키고 관절의 강직을 감소시키는 유연성 운동과 근육강화 운동 및 지구력 운동이 복합된 운동이다. 수영 역시 결코 무리해서는 안되며 주로 자유형과 배형을 실시하고, 평형은 무릎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지된 자전거 타기는 대퇴, 무릎, 다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좌석 높이를 조절하여 발판이 아래에 있을 때 무릎을 곧게 펼 수 있도록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당 약 20km 이하로 하며, 저항을 추가할 때는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페달을 밟는데 힘이 들 정도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인공관절

무릎관절에 심한 동통과 보행장애 및 퇴행성병변이 관절 전체에 과급되어 있는 환자가 수술 대상이다. 수술 후 통증의 완화와 관절 운동범위의 개선, 관절의 안정성 도모 및 전반적인 관절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술식. 수술과 마취에 금기가 되는 질병이 없다면, 80세 전후까지는 수술 받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과거에는 인공관절 수술 후 합병증이 많았고 수술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수술 기술과 기구의 발달로 치료성적이 현저하게 좋아졌다. 따라서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활기간도 짧아져서 수술후 약 1주일 이내의 입원으로 충분하며 수술 1~2일후부터 보행이 가능하다.



민 병 현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해부학교실 정민석교수



생리학교실 백은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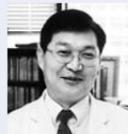
생화학교실 이재호 교수



약리학교실 주일로 교수



미생물학교실 김성환 교수



예방의학교실 신호준 교수



인문사회이학교실 조남한 교수



소화기내과학교실 임기영 교수

새로운 리더십 구축

아주대학교의료원은 2003년 3월1일자로 각 교실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새롭게 주임교수직을 맡게된 교원을 살펴보면, 기초의학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몸의 연속절단면 영상을 제작하고, 만화 해부학의 저자로 유명한 의학자인 해부학교실 정민석 주임교수, 미국 UTMB에서 연수 후 신경생리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는 생리학교실 백은주 주임교수, 분자암학·세포 신호전달·간성훈수 등의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생화학교실 이재호 주임교수, 기생충학과 분자학에 대한 저서를 출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성 자유 아메바에 대한 연구를

주임교수겸 임상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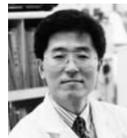
순환기내과 탁승제 교수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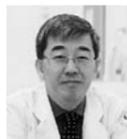
신장내과 김흥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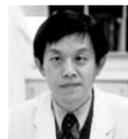
종양혈액내과 임호영 교수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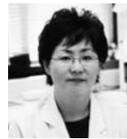
소아과 김성환 교수



신경과 허균 교수



정신과 정영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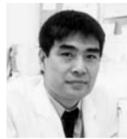
피부과 이은소 교수



외과 조용관 교수



흉부외과 소동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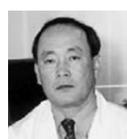
신경외과 조기홍 교수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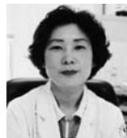
안과 유호민 교수



이비인후과 박기현 교수



비뇨기과 김세중 교수



재활의학과 나은우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김진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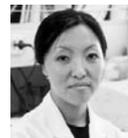
진단방사선과 김선용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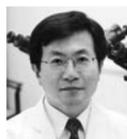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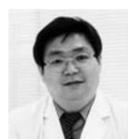
핵의학과 윤석남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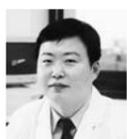
진단검사의학과 이위교 교수



병리과 이기범 교수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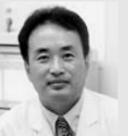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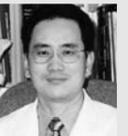


치과 황병남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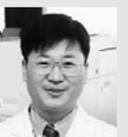
임상과장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



정형외과 원예연 교수



산업의학과 이경중 교수

진행중인 미생물학교실 신호준 주임교수, 이미 보건복지부 지정 임상역학센터를 운영하면서 임상역학계에서 국내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방의학 교실 조남한 주임교수를 내정했다.

임상의학에는 98년 유럽학회에 관상동맥 혈류속도에 따른 측정 평가법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등 아주대병원을 심장혈관질환 최신 치료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는 순환기내과 탁승제 주임교수, 당뇨병의 병인론 및 치료에 대한 연구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주임교수, 국제 베체트병학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의학자중 한 분인 피부과 이은소 주임교수를 내정했다. 또한 위암절제술 2000례 이상을 시행하는 등 위암 수술과 재발 치료에 있어 최고 권위자인 외과 조용관 주임교수, 척추수술에 미세 현미경을 이용, 환자만족도 100%에 가까운 치료성적을 보이고 있는 신경외과 조기홍 주임교수, 비뇨기계 암의 내시경적 수술 및 근치적 수술치료에 탁월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비뇨기과 김세중 주임교수, 뇌손상 및 뇌질환재활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재활의학과 나은우 주임교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이용한 심장기능 평가 등의 연구를 진행중인 핵의학과 윤석남 주임교수, 선천성 심장환자의 조기진단과 수술적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인공장기와 조직개발을 연구 중인 흉부외과 소동문 주임교수, 만성피로 및 남성갱년기 치료로 유명한 가정의학과 김광민 주임교수 등을 새로이 포진시켜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고 팀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선한 새바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S

의료원 ▶▶▶▶

아주대 30주년 비전 선포식 개최 - 「World Class University」



아주대학교는 개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3월14일 금요일 오후 5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위한 「아주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아주대학교는 10년 후 비전을 「World Class University」로 정하고 ▲ 해외글로벌 캠퍼스 구축 ▲ 국제 프로그램 활성화 ▲ 세계시민을 기르는 교양교육 강화 등 20대 전략과제를 세웠다.

이번 행사는 구성원간의 화합과 단결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Ajou Vision 4U(for you)」를 선언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선포식에서 아주대학교 오명 총장은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모두가 하나되어 아주 vision 달성을 위해 노력해가자」고 당부했다. 아주대학교는 419개 자매대학 및 국제교류대학을 2013년에는 1천여개로 확대해 전세계의 15% 대학과 교류하고 해외 대학 겸직 교수제와 초빙 교수제를 통해 해외 석학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외협력담당관 이운환 교수 임명



의료원은 3월1일부로 국제교류 및 국제기관간 업무를 전담할 대외협력담당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예방의학교실 이운환 교수를 초대 대외협력 담당관으로 임명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학생, 교수, 수련의 등의 국제교류, 국외 병원 및 기관과의 자매결연, 기타 부수되는 업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의과대학 ▶▶▶▶

2002학년도 가정간호교육과정 수료식



간호학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별관대강당에서 2002학년도 가정간호교육과정 수료식 및 200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 및 입학식에서 72명의 가정간호교육과정 수료자가 배출됐으며, 69명의 입학생이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이날 김영수 의과대학장은 「아주의대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가정간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장학금 수여

— 고병희 학생(의학부 3년)
아주의대 3학년 고병희 학생이 지난 3월7일 의과대학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의사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고병희 학생은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추천되어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됐다.

아주대 의대 오케스트라 Medic Chamber 환자초청 공연 가져

의과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메디챔버가 지난 3월5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환자들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우리 함께 해요」를 개최했다.

올해로 14번째로 개최된 메디챔버의 정기공연인 이번 공연에는 수원 정신보건센터장인 아주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이영문 교수가 주선, 이분 이들에게 음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신보건센터 환자들과 수봉재활원 정신장애인, 희귀질환자 50여명을 초청했다.

이날 공연에는 한양대 작곡과 이한주씨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를 비롯, 핀란드, 베토벤 교향곡 5번 C장조 등 모두 8곡을 선보였다.

메디 챔버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만든 의과대학 내 동아리로 빠빠한 수업 일정속에서 연습은 물론, 환자들을 위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편, 메디챔버는 지난 3월8일부터 2004년 2월28일까지 1년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 및 교직원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 정신보건 리더쉽 프로그램에 장학생으로 초청받아

— 정신과학교실 이영문 교수
정신과학교실 이영문 교수가 호주 멜버른 대학교 미국 하버드 대학 사회의학교실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정신보건 리더쉽 프로그램」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3월3일부터 3월29일까지 4주간 초청연수를 받게 됐다.

한일약품학술상 수상

— 진단검사의학교실 임영애교수
진단검사의학교실 임영애 교수가 지난 2월14일 대한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로부터 「한일약품학술상-우수칼럼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상은 「면역 측정법의 표준물질」이라는 내용의 칼럼이 임상검사 정도관리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일본 항공사로부터 감사장 받아

— 응급의학교실 이국종 교수
응급의학교실 이국종 교수가 최근 일본 항공사로부터 감사장과 함께 시계를 선물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지난해 12월31일 이국종 교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정신질환으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다른 승객

들과 함께 저지 후 응급조치를 취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내온 것이다.

연구소 ▶▶▶▶

뇌질환연구소, 「세계 뇌 주간」 기념 공개강좌 개최



중의 이해(신경과 주인수 교수) ▲ 파킨슨병의 개념과 치료(신경외과 안영환 교수) 등 최근 의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조기치매와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병에 관해 뇌질환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뇌질환연구소는 세계 뇌 주관을 맞이하여 오는 3월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뇌질환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 조기치매 : 난치병 치료의 길(뇌질환연구소 이명애 교수) ▲ 치매의 원인과 대책(뇌질환연구소 목인희 교수) ▲ 뇌졸

병원 ▶▶▶▶

아주대병원, Full PACS 구축 가동식 개최

— 비용·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질 향상 —

아주대병원은 3월6일 별관 대강당에서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인 FULL PACS 가동식을 개최했다.

이번 Full PACS구축으로 아주대병원에서는 X-ray, CT, MRI 등 필름이 모두 없어지고, 모든 진료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의료영상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조회 진료한다.

이번에 병원에 설치된 PACS는 3초 이내에 고화질의 의료영상을 조회할 수 있고, 방사선 영역을 비롯한 핵의학, 내시경, 초음파 등의 일반 PACS 외에 국내 최초의 심혈관 PACS·병리 PACS·치과 PACS 까지 풀 PACS 시스템을 통합했으며, 건강증진센터, 산업의학과 등 병원 전 영역에 대한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을 구현했다. 특히, 웹 기반의 PACS를 동시에 구축, 외부에서도 원하는 영상을 조회할 수 있어 의사의 재택 진료 및 협력 병원에서 공동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 상대적으로 장비가 덜 갖춰진 협력 병원에 웹을 통해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협력 병원과 새로운 협동진료 모델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홍창호 병원장은 「이번 Full PACS 구축으로 필름발생으로 인한 공간, 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며, 특히 병원내 모든 의료정보를 실시간 공유, 대기시간의 단축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경기 남부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성질환, 강직성 척추염 등 공개강좌 열어



병원은 지난 27일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주최 「류마티스 관절염교실 — 강직성 척추염」과 정신과 주최 「환병, 두통, 신경성 위장병의 주범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건강공개강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류마티스관절염교실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의 정의와 치료에 대해 서창희, 서유진 교수의 강의를 들었으며, 오후 3시부터 5시에는 스트레스에 대해 정신과 임기영, 오은영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팀장(기사장) 워크숍 개최

의료원은 2003학년도 부문별 중점추진 사업목표 수립 및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 각 부서의 팀장, 기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지난 3월8일과 9일 양일간 단양대명콘도에서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선 지난 학년도 실적 우수부서인 의용공학팀, 홍보팀, 핵의학과, 병리과, 원무팀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기획조정실의 2002학년도 경영실적보고 및 2003학년도 사업예산 설명회 자리도 가졌다.

역대 모범 교직원 전체 간담회



병원은 2월25일 별관 5층 소회의실에서 홍창호 병원장을 비롯 최영 행정부원장, 김혜숙 간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모범교직원 전체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한결같은 의료원 사랑의 마음을 격려했다.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 및 교직원간 친절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교직원들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3년 1월 모범교직원(5ICU 김선숙 간호사) 시상도 함께 열렸다.

우수 전공의 선정, 시상식 가져



병원은 2월25일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임상각과 주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 전공의 시상식을 갖고 베스트 인턴 수상자로 선정된 김현아 인턴과 베스트 레지던트로 선정된 황재철 레지던트 그리고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마빈 인턴에게 각각 시상했다.

병원은 매년 수련기간 동안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는 우수 전공의를 선정, 표창하고 이들의 면학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제1기 중앙전문간호사 수료식 개최



간호부는 지난 2월15일 오전 11시30분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중앙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복미숙, 이진희, 서미숙, 이경희, 지수용 간호사는 지난 2002년 9월19일부터 2003년 2월14일까지 중앙혈액학 및 전문간호 등 총 130시간의 교육을 통해 암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중앙전문간호사로 거듭났다.

이날 수료식에서 홍창호 병원장은 「의료의 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암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전문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도·서·기·중

수원독립자 병원은 정형외과학 관련 학술잡지 「Clinical Orthopedics and Related Research」 외 205권과 단행본 「Orthopedic Radiology」 외 300권의 도서를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아주사회사업기금

후원구좌 가입 안내



아주사회사업기금 기부계좌 변경 및 통합안내

아주사회사업기금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관리를 위해 2003년 3월부터 아주대학교의료원 명의의 계좌로 통합, 관리키로 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중 은행 무통장 입금시 제일은행 692-20-161479(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을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문·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2.27	국민일보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희귀병 눈물겨운 사투 - 마르판 증후군
3. 3	스포츠서울	피부과 이성낙 석좌교수	초상화로 피부병을 고친다?
3. 5	경향신문	소화기내과 황일란 교수	이말 정말 맞나요, 물마시면 위늘어나나?
3. 6	한겨레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119구급차 10대중 6대 심폐소생장치 없다
3. 4	경기일보	정신과 정영기 교수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 사회공포증
3.11	경인일보	신경과 주인수 교수 신경외과 신용삼 교수	뇌졸중
3.11	한국일보	피부과 이성낙 석좌교수	노인 피부관리 요령-나이들면 사워줄이세요
3.11	중앙일보	산부인과 이정필 교수	비만여성 생리이상 난소질환 의심해야
3.11	중앙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간장약 바로 먹는 법
3.17	경인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비만클리닉 약물부작용 심각
3.18	중앙일보	피부과 이은소 교수	피부 노리는 불벌 자외선
3.18	경인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다이어트, 1주일에 10Kg?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2.24	SBN 뉴스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한국 작은키 모임(인터뷰)
2.26	SBN뉴스레이더	정신과 오은영 교수	다중시설 위험
2.28	KBS1 병원24시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당신
3. 7	SBN 뉴스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아주대병원 PACS 구축
3. 7	SBN뉴스레이더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한국 작은키 모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축농증 수술에 대해 궁금합니다



Q 25살의 대학생입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에 걸린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축농증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축농증 수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축농증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장질환자보다 축농증 환자의 삶의 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축농증도 방치하면 점점 나빠지게 되어 수술 후에도 상당기간 불편하거나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내시경수술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과거보다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코수술 후에는 재발한다는 과거의 통념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단 병변이 심하거나 다른 병변(비중격만곡증이나 비후성비염)이 있어 함께 수술해야 될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시간은 축농증 수술을 양측으로 하는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다른 수술을 함께 하면 30~40분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수술 전에는 2~3주간 약물치료를 하고, 상태가 심하면 3~4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

이비인후과 외래 031-219-5747

폐섬유경화증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인가요?

Q 폐질환 중 폐섬유경화증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폐섬유경화증에 대한 치료약도 없다는데 정말인지요? 이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폐섬유화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 모르게 폐내에 섬유화가 진행하여 대개 진단 후 3년 내에 반수가 사망한다고 알려진 치명적인 질환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발병기전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나 어떤 원인에 의해 폐포상피세포가 손상을 받은 후 그 치유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한 동물실험 및 소규모 임상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그 중 몇 가지 희망적인 약제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전자·분자생물학적 기법의 발달로 새로운 사실들이 급속도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료약은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 항섬유화제 등이 있으며, 폐 이식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치료법이고 이식 후 5년 생존률이 50~60%로 보고되었으나 수술자체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장기의 공급도 부족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호흡기내과 오윤정 교수)

호흡기내과 외래 031-219-4730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건강 Q & A / 잘못된 의학상식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2-721)
- 이메일 apr@ajou.ac.kr

극단적 이기주의가 부른 대구 지하철 참사



지하철 속에서 순식간에 수백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참혹한 사건치고는 발달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성격변화가 생긴 범인의 방화였다. 무슨 특정한 원인이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미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대구 지하철 화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 중에서 가장 크게 각인되는 것은 몹시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진다. 하늘에서, 땅위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그리고 이제는 지하에서조차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안전에 소홀했음을 질타한다. 사고에 대한 대처 역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고 후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소개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만 이내 곧 잊혀지고 만다.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사고는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대구 지하철 화재 뿐만 아니라 기타 대형 사고에서도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없었음이 드러나곤 했다. 말로는 안전을 외치지만 우리에게 안전이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으며 당연히 안전에 대한 투자에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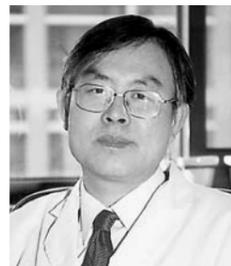
인색하였다. 비슷한 사고를 당한 선진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인명 피해를 보는 것은 그때문일 것이다.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까? 우리는 근대사의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 매우 배타적이면서 이기주의적인 행동과 심리를 체득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있지 않느냐 하는 피해의식은 사회 구성원의 무의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 같다. 옳고 정의로움을 위해 나서봐야 손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나에게 당장 손해나 이익이 없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 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 나와는 상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비극과는 상관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안전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다. 흔히 집단적인 이득이 관련된 민원에서 분출되는 적극성과는 상당히 대조가 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일이 터져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국가를 비롯한 어떤 단체 혹은 개인이라도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곧 불의이며 악

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사회에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곧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길이다. 공생의 길을 여는 방편이다. 언제 내가 혹은 이웃이 비극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 정부와 공공단체에만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에서 못 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범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몇 차례 시도했을 때 주위에서 강력하게 제지하여 라이터를 뺏고 재빨리 신고했다더라면 참사로 번지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모두 남의 일에 나서야 손해라는 생각에서 그랬을까? 하기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떠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제지하는 어른이 없는 형편이니 그 일도 쉽지는 않았으리라.



정 영 기 주임교수 / 정신과학교실

범시민적인 응급의료 교육과 지혜가 필요하다

대구 지하철 전동차 방화사건의 비극은 오랫동안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은 아무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의 건강상태나 정신상태가 자신이나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이 감지되었다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 전동차의 내부가 불에 약한 가연 물질로 만들어진 책임에서부터 지하철의 운행책임에 따른 인재의 문제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하철역의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의 비상등이나 누구나 쉽게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설치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계획은 등한시 되고 있다. 사실 어떠한 하드웨어의 결함이나 전동차 운행의 실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또한 중요하다. 단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기적에 가까운 행운에 생명을 걸수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고에 희생된 사람들이 화상으로 참변을 당했다 생각하지만 탈출 전에 질식으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호흡정지나 심장마비로 탈출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화장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또 호흡

정지에서 심장마비까지의 인명을 구제할 수 있는 황금의 10분을 놓쳐 사망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느껴지게 된다.

사실 언론에서는 유독가스에 의해서 희생자가 많았다고 하나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유독가스가 아닌 연기에 의한 질식사였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탈 때 생기는 10여가지의 유독가스는 사실상 상기도나 폐에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사망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가스가 포함된 연기를 들어마실 때 상기도의 자극으로 나오는 기침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산소공급이 차단됨으로써 생기는 호흡정지와 심장마비로 이어져 사망하는 것이다.

지난번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사건 때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화재 사고시 가장 쉽게 질사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쉬는 것이다. 물수건이 없으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두터운 옷도 좋다. 물이 없다면 타액이나 소변이라도 적시어 뜨거운 공기나 연기를 여과시켜 숨을 쉬게 되면 최소한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며 상기도의 화상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안타까운 일은 지하 3층에서 2층까지는 피했으나 사망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질식으로 인한 호흡마비와 심장마비로 사망한 희생자들이다. 이분들은 「황금의 10분」이라 말하는 심장마비후 10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다. 또한 심폐소생술 즉, 한 사람이 시행하는 경우 2번의 인공호흡과 15번의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고 두사람이 시행하는 경우 한사람은 인공호흡 1회, 다른 사람은 심장마사지 5회를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시행하는 단순 동작으로도 뇌로 가는 혈행을 유지하여 뇌사가 방지되며 심장을 소

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구조대 뿐만 아니라 손이 모자랄 때는 일반인들도 배워 실행하여야 한다.

호흡정지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는 병원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시애틀시의 예를 보면 심장마비가 병원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30%의 환자가 생존하는 것은 시민들의 돌연사에 대한 높은 인식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결과라고 사료된다.

우리 나라 국민처럼 머리가 좋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우리 모두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과제이다. 문맹자가 거의 없는 우리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지만 모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국민자원이 아닐까. 대구지하철 참사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책임의 소재만 따지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심폐소생술의 범시민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순간적 기지나 행운에 목숨을 걸지 말고 체계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 병 일 교수 / 순천기내과학교실

산악 자전거, 내몸에 맞춰서 타기

요즘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산악자전거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게 되므로 일반 자전거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높다. 안장에 앉아 페달을 밟으며 자연속을 달리는 산악 자전거의 멋도 안전할 때에만 즐길 수 있다. 첫째가 안전이다.

부상의 종류

전복사고

내리막길, 방심, 속도 이 세가지가 자전거 사고의 주원인이다. 내리막길에서 방심하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자전거가 뒤집어지면서 몸이 핸들 너머로 솟구쳐 앞으로 나가 떨어진다.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지나 병원을 찾아올 정도의 부상에서는 특별히 어깨를 다친 경우가 많다. 쇄골 골절이나 어깨의 주요관절 중 하나인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나 혹은 어깨관절 자체의 탈구 등이다. 나무나 벽을 들이박는 등 아주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는 복부 골반 장치의 파열 및 골절, 얼굴이나 머리 부상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성통증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같은 근육과 힘줄을 계속 한방향으로만 사용하면서 생기는 과사용에 의한 질환이다. 무릎, 허리, 목, 어깨, 손목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 하체의 경우 특히 반복 동작에 의한 관절 주변 힘줄의 염증이 원인인 수가 많고, 상체의 경우는 핸들에 지나치게 체중을 싣는 잘못된 자세로 율통불통한 길을 달리면서 전달되는 진동이 원인인 수가 많다.

기타 부상

자전거 안장의 지속된 압박으로 회음부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 요로기능이나 성기능 장애로 진행될 수도 있다.

예방책

장비관리

평소 자전거를 잘 관리할 뿐 아니라, 보호장구인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등을 꼭 갖추어 타야한다. 특히 헬멧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전거 내몸에 맞추기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자신의 자전거를 각자의 몸에 적합하도록 잘 맞춰놓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개개인이 각각 독특한 신체적 특성이 있다. 같은 키의 사람이라도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양쪽 다리길이가 다른 사람도 있고 「O」자형 무릎인 사람도 있고 「X」자형 무릎인 사람도 있다. 새로 자전거를 구입할 때 먼저 기본적인 맞춤을 시작한다. 자전거의 크기와 안장의 높이, 경사, 올라타서 페달을 돌릴 때 무릎과 페달과의 위치와 각도 등을 고려한다. 또한 초기에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가 나올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자전거를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맞춤 과정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통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치료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자 다리인 사람이 무릎 주위 건염으로 통증이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크랭크암과 페달 사이에 스페이서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되고,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페달의 각을 약간 교정하여 발 안쪽으로 쏠리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몸 관리와 운동

피로가 오면 속도를 늦추고 페달 저항을 낮춘다. 몹시 피곤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자전거를 탈 때 잘 쓰지 않게 되는 근육도 스트레칭을 통해 자주 풀어주고 특히 허리를 위해 등 근육 운동을 해준다. 한낮에는 전해질 음료를 적절히 복용해 가며 운동을 하고 평소 회복과 섭생에 힘쓴다.

김 현 정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다정한 상담자 같은 의사

『어디 다녀요?』

『아주대요.』

아쉽게도 여기서 질문이 끝나면 「아주대 의대」라고 말하지 못한 나의 소심함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간혹 (고맙게도^^) 『전공이 뭔데요?』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난 당당하게 『아주대 의대 다녀요.』라고 말한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나의 소속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의대공부가 내가 오래 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의대생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힘든 과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유난히 많이 받는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용할 만한 멋진 말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거창한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 그 때 당시에는 언니보다 공부를 잘했던 나에게 큰 기대를 하셨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나에게 「병희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런 기대와 세뇌(?)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의대에 가고 싶어졌고 당연히 의대에 가야만 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 또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의사라는 직업을 더욱 멋지게 했다.

고등학교 시절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 주위 친구들의 망설임과는 달리 나는 별 고민없이 이과를 선택했고, 드라마 「해바라기」에서 처음 접하게 된 아주대학교병원에 매력을 느낀 후부터 나의 목표는 「아주대 의대」가 되었다(그 때 당시 나의 판단기준은 그 병원의 내부인 테리어가 얼마나 멋진가였다^^).

학생시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했었다는 어떤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학생 시절에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일찍부터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으니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중학생 때부터 드나들던 동네 내과 의사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셨다. 그 선생님께서는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찾아왔건 그 질병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아끼지 않으셨다. 또한 의사는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함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내가 앞으로 어떤 과를 전공하든지 나와 한 번이라도 인연이 닿았던 환자가 몸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 마음이 괴로울 때조차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다정한 상담자가 되고 싶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훗날 누군가 나의 직업을 물었을 때 지금만큼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초심을 지켜나가야겠다.



고 병 희 학생 / 의학부 3년

See, Stand, Smile

굿모닝 병원

양·한방 협진의 종합병원

양·한방 협진의 종합병원인 굿모닝병원은 지난 1981년 경기지역 최 남단인 평택 지역사회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담당해 온 의료법 인 백송의료재단이 320병상의 굿모닝병원과 80병상의 성심한방병원, 즉 양·한방의학의 교류를 통한 협진체제를 갖추고 2001년 7월7일 새롭게 개원한 병원이다. 훌륭한 의료진과 좀더 편안하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의료시설을 갖춘 굿모닝병원의 개원은 지역사회 의료수준을 짧은 기간 내 대도시 대형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주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은 의료인으로서의 보람과 더 큰 책임을 느끼게 해 주었다.

우수한 의료진과 과별 전문화시스템 구축

굿모닝병원은 그 동안 우수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장항문센터, 척 추디스크센터, 뇌신경센터, 통증센터, 인공관절센터, 양·한방 협진 뇌·신경 중풍센터, 종합건강진단센터를 개설하고 질환별 진료를 전문 화하여 고난이도의 진료와 수술로 한껏 높아진 진료수준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최첨단 디지털시설의 병원으로서 새로운 병원의 신축과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장전달시스템(PACS) 등의 첨단 디지 털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과별 전문화 시스 템을 구축하여 내과부, 외과부, 산부인과부, 소아과부, 한방부, 뇌·신 경중풍센터, 건강검진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는 지역 최고의 의 료수준을 과시하면서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이뤘다.

환자를 위한 고객 서비스 실천

굿모닝병원의 모든 것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환자가 있기에 병원 이 있으며 환자와 병원이 하나라는 생각과,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 는 마음으로 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고객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굿모닝의 하루는 미소입니다」, 「See, Stand, Smile」, 「하루 333(친절, 미소, 선행)」이라는 표어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각 부서에 부착하고 매 일 전 직원이 캠페인 실행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편·불만 사항을 파악하고자 특별로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승광 이사장은 고객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매 일 오후 5~6시에 고객과의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소리를 직접 접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굿모닝 서비스 아카데미, 서비스 친절



위원회, 부서별 서비스 교육위원회, 서비스 QA 관리위원회 등 서비스 조직의 운영 역시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극대화하고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굿모닝병원의 계속되는 노력은 의사실명제, 간호실명제, 직원안내제, 전화예약제, 인터넷예약제, 퇴원예고제, 전화방문제, 환자회송제도, 자원봉사자운영, 호스피스선교회 운영, 고객친절서비스의 날 운영, 무료검진의 날 운영, 고객사랑의 음악회 개최, 고객체조교실 운영, 고객 매주 이·미용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고객들의 「ONE STOP」 서비스를 위해서 원내에 편의점, 고객식당, 제과점, 꽃집, 커피숍 및 각 병동에 입원환자 휴게시설과 보호자 휴게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아주대병원과 진료협력 체결로 이념실현에 기대

굿모닝병원은 2002년 아주대학교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맺음으로써 그동안 굿모닝병원이 추구해 온 미래지향적인 종합의료시설을 갖추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이념실현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욕 망인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추구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 며 전문 보건·의료인의 교육과 양성을 위한 굿모닝병원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영 배 팀장 / QI팀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를 무너뜨린 위암



1821년 5월5일 저녁,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1769~1821)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 하였다. 자신이 죽게되면 반드시 부검을 시행하여 사인을 밝혀 달라는 유언에 따라 다음날 부검이 시행되었다. 부검결과 주된 소견으로는 위가 간에 유착되어 있었고, 유착된 부위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발견되어 - 당시로는 현재와 같이 현미경을 이용한 병리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이라고 밝힐 수는 없었으나 - 「위유분부에 생긴 위궤양 천공」이라고 진단하였다. 아마도 이 궤 양은 악성궤양(위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연 이 궤양이 양성궤양인데 천공되어서 나폴레옹이 사망한 것인지, 혹은 악성궤양이어서 암의 전파에 따라 사망한 것인지는 당 시에 부검에 참가하였던 영국 군의관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었지만 현대에 서는 악성궤양, 즉 위암일 것이라는 주장이 더욱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가족력(Family history) 때문이다.

흔히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유전이 실제로 자 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게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렇 다면 위암도 유전된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 암유전자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5대 이상에서 위암이 발생한 집안에서 특이하게 변이된 유전자가 규명된 바 있어 「유전성 위암」을 뒷받침해주는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에서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집안에서 위암발생이 증가하여 특히 부모 중 위암이 있는 자식에게서 종종 위암이 진단되고 있다. 이것은 위 암의 발병원인이 음식공유 등으로 가족내에 함께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가족끼리 만 즐기는 잘못된 식이 습관,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가족간에 비슷 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위암은 조기검진이나 낫다른 노력으로 회피가 가능하므로 몸에 이유없이 좋다는 건강 식품이나 명약을 찾아다니지 말고 차근차근 따져보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러 가지 첨단의학 검사, 첨단약품, 진단 방사선검사 등이 아무리 발달한 현대에서도

위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 위질환에 대한 상식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가족중에 위암을 포함한 암환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Oncogene(암유전자)나 암억제 유전자 등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한다. 「천하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위암앞에 무릎 꿇은 나폴레옹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배경하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아주대학교의료원에 개설된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 인을 초기에 찾아냄으로써 점차 한국인에게서 암에 의한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의 공포」에서 우리 나라 국민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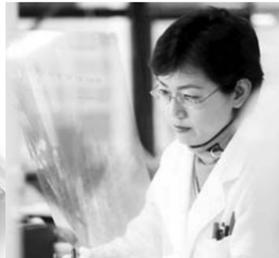
함 기 백 소장 / 간 및 소화기 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를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15명	24,246,000원	37,745,800원
누계	267명	865,072,201원	652,857,00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김선용	3,000,000	진단방사선과학교실 교수
김영신	200,000	가정간호센터
남옥남	300,000	의과학연구소
박소영	100,000	가정간호센터
신호준	1,200,000	미생물학교실 교수
응급의학과 의국	1,000,000	응급의학과
이민선	720,000	경리팀
이은소	2,500,000	피부과학교실 교수
이은주	2,000,000	진단방사선과학교실 교수
이학봉	500,000	경리팀
정이숙	2,000,000	생리학교실 교수
조철우	300,000	경리팀
진재우	2,000,000	동문(닥터진날씨의원)
최원신	500,000	원무팀
○○○	8,926,000	교외 후원자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가나다순)
2003.2.16~2003.3.14



게시판

신경통증클리닉, 진료공간 확장이전 예정

의료원은 신경통증클리닉의 외래진료 및 치료 공간을 확장하여 이전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신경통증클리닉은 1층 외래와 3층 신경통증치료실, 체열활영실 등 공간이 분산되어 있어 환자 진료에 고충이 있어 병원 2층 대회의실에 외래 진료 공간, 주사실, 통증치료실, 체열활영실 등을 한 공간에 모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그 동안의 불편한 점을 해소, 보다 적극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회의실은 지하 1층 구)노조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공간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공사 준비 중에 있다.

학습 및 발달장애진 클리닉, 신윤미 교수 진료개시

의료원은 오은영 교수의 자리를 대신하여 신윤미 교수를 4월1일부터 임명,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틱, 자폐언어장애 등의 정신과 외래 진료와 학습 및 발달장애 클리닉 운영을 담당하게 했다.

진료시간은 변동없이 정신과 진료는 월, 수 오전, 금요일 오후이며, 학습 및 발달장애 클리닉은 수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2003년도 골수이식 공개강좌 일정 안내

아주대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센터 주관으로 매달 첫째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병원 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골수이식 공개강좌의 일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연자	주제
4/3	영양팀 이혜경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식이요법
5/15	종양혈액내과 박준성	조직적합성 항원 및 이식편대 숙주질환
6/5	원무팀 홍다영	이식 경비
7/3	소아과 박준은	소아 백혈병의 치료
8/7	이식코디네이터 서미숙	비혈연 골수이식
9/4	혈액암협회	협회 소개 및 국내 환자 치료현황
10/2	이식병동 김현실	이식환자의 병동관리
11/6	사회사업팀 박미정	이식수술 준비하기:환자와 가족의 역할
12/4	종양혈액내과 김효철	아주대병원 이식현황 및 방향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4310 내과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박해심	5902	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남중호	5902	해외연수중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만성골관절염, 소그렌 증후군,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서유진	5902	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 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중등 클리닉 5890	김찬	5897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반종, 수축성동,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5897	화, 목, 토	수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일반진료	김영옥	5897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알성통증 기타	
	김영옥	5897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알성통증 기타	
유방 클리닉 4744	김영옥	4743	수		유방질환 및 난치성 소화기질환	
	박희봉	4743	화		유방질환	
학습 및 발달장애 클리닉 5814	신윤미	5814	수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
	조선미	5814	금, 토	화,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조성원 5969	월, 화, 목		
		이기명 5963	수, 토	월	
순환기 내과	심부전클리닉	최병일 5974	월		
		정학재 5975	목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최영화 4730	목	월, 수	
	알레르기 클리닉	박해심 5905	월, 금		
정신과	별독(근종독) 알레르기 클리닉	남동호 5905	해외연수중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임기영 5810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강원형 5912	월, 화, 목		화(레이저치료)
	모발클리닉	윤경한 5914	금, 토	화, 금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최호 5752	화, 목		화, 목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신용삼 5664	수		
신경외과		김신용 5858			
	구순구개열클리닉	박명철 5611	수		
성형외과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정재호 5612	해외연수중		
	콘택트렌즈클리닉	문상호 5671		금(1주, 3주)	
안과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문상호 5671		금(2주, 4주)	
	요실금클리닉	최중보 5587	화, 금	수	
비뇨기과	야뇨증클리닉	김영수 5586	수	금	
	비만클리닉	김병덕 5957	월, 수, 목	금	
가정의학과		신상호 5957	목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황병남 5869	월, 금	화, 목	
치과		고석민 5869	월	수	
	턱관절 장애 클리닉	황병남 5957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3년4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 기 내 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함기백	5963	목	화, 목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해외연수중		위장질환		
	유병무	5962	월, 수	금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간·위장관질환		
	황일란			화, 금	위장관질환		
	정재연	5962	금	수	간장질환 및 위장질환	★	
	김도현			수	소화기질환	★	
	송현주			월	소화기질환	★	
순환 기 내 과	이은희		목		소화기질환	★	
	일반진료		금		소화기질환	★	
	최병일	5974	월, 화, 수		심장혈관질환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상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한	5975	해외연수중		심장혈관질환, 심장관막질환, 고혈압, 심조음과		
	황교승	5975	월, 목, 금	월	부정맥, 전기생리검사, 전극도자갈색술, 인공심박동기		
	윤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상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상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장혁재	5975	목, 금	월	심장관막질환, 심부전증,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심장조음과		
	최태영	5975		목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 내과	박재우	5973	토		외국인 진료		
	일반진료		토				
4730 내 과	황성철	5967	월, 화, 금	목	폐결핵, 감염성폐질환, 폐암		
	박광주	5967	수, 금	월, 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목	월, 수	폐스, 환인 또는 일 할러져, 쓰지마시, 폐렴, 기침정명환		
	오은정	5968	월, 목	화, 금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토	목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일반진료	5968		수	호흡기질환		
	내분비 내과	김현만	5960	화, 수, 목	수	갑상선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정신과	정운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일반진료	5961	토		내분비대사질환	
신장 내과	김홍수	4741	월, 수, 목,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금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4740 일반진료	5971		토	화			
	5971		토	화			
종양 혈액 내과	김효철	5992	월,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조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혈압		
5990 일반진료	박준성	5991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혈압		
	5991	화, 목	화, 수, 목		혈액질환, 종양		
5902 일반진료	5991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5991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유방 클리닉 내과	박해심	5905	수, 목, 금	수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남중호	5905	해외연수중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5902 일반진료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만성골관절염, 소그렌 증후군,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서유진	5905	목, 토	월, 화, 목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5902 일반진료	최정희	5905	화, 토	금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5905	화, 토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내과 일반	5970	월~토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 아 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의학, 정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수	신경계질환, 간질	
	배기수	5623	월, 화, 금	수	신장학	
	이수영	5623	월, 수, 목	수	알레르기, 호흡기학	
	박문성	5617	월	수, 목, 금	미숙아, 신생아학	
	정조원	5621	수	월, 목	심장질환(대, 수, 금)은 심장 초음파 가능	
	박준은	5617	수	월, 목	소아혈액·종양	★
	황진순	5621	수	월, 목	소아내분비 질환	★
	일반진료		월-토	월-금		
	5619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신 경 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치매	
	이필후	5657	월, 토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간질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화, 목, 금		
	5656					
정 신 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노재성	5811	해외연수중		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수	수,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폐아장애	★
	일반진료		화, 목	금		
5814 일반진료						
피 부 과	이성낙	5912	(예약)		베제트병, 화학박피술	
	강원형	5912	월, 화, 목	(예약)	멜라닌세포 질환 (화·레이저치료)	
	이은소	5913	수	월, (예약), 목	건선, 여드름, 베제트병(수·레이저치료)	
	윤경한	5914	화, 금	(예약)	모발질환, 알레르기·습진, 색소질환, 안면주름 (금: 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월, 목	(예약)	백반, 무좀, 접촉피부염 색소질환 (목: 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5917 일반진료			월-토	월-금		★
5758 외 과	김명옥	5761	월, 수(초진)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폐변기능장애)	
	영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서광욱	5753	월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5758 과	박희봉				유방질환	
	오창권	5756	(예약)	월, 금	장기이식	
	김옥환		목, 토	월, 금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금	월	위·십이지장 질환	★
	이국중	5753	목		외상외과, 소화기·소아외과	
	정용식	5756		목	소화기 질환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219-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응급의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5752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외과, 흉관외과	
	최 호	5750	화, 목	화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강준규		토	수, 목	성인심장외과, 일반흉부	
정형외과 5545	강신영	5544		월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토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일반진료	5542	화, 토	수, 목,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
신경외과 5664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
	신용삼	5663	월, 수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
	김세혁		토	수, 금	뇌종양, 외상	★
성형외과 5614	박명철	5611	월, 수, 금	월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해외연수중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화, 목, 토	화	수부성형, 미용성형	★
산부인과 5597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월, 화 , 목	화, 금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금	화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화 , 수, 목	월,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수, 금	월, 수, 금	불임 및 부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산과, 부인과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5673	유호민	5669	월, 수, 금	화 (예약), 목 (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0	월, 금	화	각막, 녹내장, 엑시머·라식수술	
장윤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문상호		5671	화, 토	금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금		
이비인후과 5747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
	문성균	5742	화 (내진료), 목 (예약)	월, 목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정연훈	5742	목 (예약)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김철호	5746	수, 목 (예약)	월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토	화,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최호석		화, 금	목	부비동염, 두경부	★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응급의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5585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인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중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최민규		토	화, 목	요로결석, 남성과학	★
재활 의학과 5802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치방사 선과 5884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핵의학과 5939	윤석남	5947	월, 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 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
신장외과 6044 6006	이경중	5645		화		★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가정 의학과 5959	김광민	5957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새별	5958	화	목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
	김범택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손종천	5958	화, 토	수, 목	갱년기, 금연	
	정유지		금	월		★
치과 5869	일반진료		월-금	월-금		
	황병남	5869	월, 화*, 목*, 금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고석민	5869	월, 수, 목, 금*	월*, 수*	인공치아보철, 틀니	
	이정근	5869	해외연수중		악안면외상, 악안면기형(주걱턱)	
	이승훈	5869	화*, 금*	월, 화, 수, 금	치열 및 악안면기형 교정	
일반진료		월-토	월-금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과수가 과제로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명 응급의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과 6001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운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종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원 → 아주대 입구 (한빛은행) → 세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
 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